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⑬

誌公十二時歌云 平朝寅
지공십이시가는 평조인
狂機內隱道人身 坐臥不知玩是道
광기내은도인신 좌와부지원시도
只慮忙忙受苦辛 此是内外全
지마망망수고신 차시내외전
用息妄功夫也
용식망공부야

亦不辨東西南北 將四方八面
역불변동서남북 장사방팔면
只作一箇大解脫門 圓陀陀地體用不分
지작일개대해탈문 원타타타체용불분
無分毫滲淚 通身打成一片
무분호삼루 통신타성일편
其安何處得起 古人云 通身無縫罅
기안하처득기 고인운 통신무봉호
上下透圓圓 是乃透出體用滅妄功夫也
상하투원원 是乃透出體用滅妄功夫也

또 지공(誌公)의 <십이시가>에서는 "새벽 인시(寅時)여, 미처공의 기를 안에 도인의 몸이 숨었구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이 원래 도(道)인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허덕이며 고생만 하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의 전부가 진심의 작용임을 알고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九即體即用 謂做功夫時 雖冥合眞體
구즉체즉용 위주공부시 수명합진체
一味空寂 而於中 內隱眞明
일미공적 이어중 내은영명
乃體即用也 故永嘉云 惺惺寂寂是
내체즉용야 故영가운 성성적적시
惺惺寂寂非 寂寂惺惺是 寂寂無記非
성성상상비 적적성성시 적적무기비

열째는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는 것이다. 공부할 때,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고, 또한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 팔면을 다만 하나의 해탈문으로 만들어서 둥근 구슬처럼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하여 털끝만큼 도 빈틈이 없이 온몸을 한덩어리로 두드려 만드는 것이니 망념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온몸이 깨면 지리가 없이 위아래가 온통 둥글구나" 하였으니 이것이 곧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여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已上十種做功夫法 不須全用
이상십종주공부법 불수전용

“공부할때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고 빈틈없이 온몸 한덩어리로 만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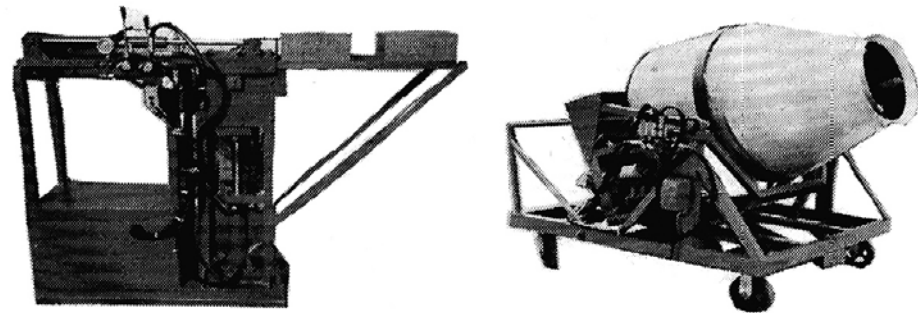
既寂寂中 不用無記 惺惺中
기적적중 불용무기 성성중
不用亂想 所有妄心 如何得生 此是
불용난상 소유망심 여하득생 차시
即體即用滅妄功夫也
즉체즉용멸망공부야

但得一門 功夫成就 其妄自滅
단득일문 공부성취 기망자멸
眞心即現 隨根隨習
眞心即現 隨根隨習
眞心即現 隨根隨習
眞心即現 隨根隨習

아홉째는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공부할 때, 비록 진심의 본체에 고요히 합해져서 하나같이 비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안으로 신령한 밝음이 숨어 있으니 그 본체가 바로 작용이다. 그러므로 영가 스님은 "뜨렸하면서도 고요한 것은 옳으나, 뜨렸지만 단상이라면 잘못이고, 고요하면서 또 열하면 옳지만 고요하면서 명청하면 잘못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고요한 가운데서 명청함을 용납하지 않고, 또 열한 가운데서 어지러운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면 망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이 본체가 곧 작용임을 알고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十透出體用 謂做功夫時 不分内外
십투출체용 위주공부시 불분내외

자동황토 흙벽돌기계 (유압식 다목적 믹서기 개발)



▲고압 유압 자동 황토흙벽돌 기계

▲유압식 다목적 믹서기

- 고압 유압 압축으로 생산
· 1일 생산량 400~500장
· 작업이 용이함
· 규격별 생산 주문 가능

- 가정용 황토방
· 2~3평
· 모델하우스 공개

- 소규모 건설현장, 건축용 콘크리트 배합
· 화공약품배합 농·축·산용·식품용 등
· 용량 200ℓ ~ 1,500ℓ, 3,500ℓ 제작
· 유압작동으로 고장이 없으며 레버 작동으로 작업이 용이

황토 흙벽돌 자동화 시설 완비, 흙벽돌 생산 판매, 가정용 황토방 2~3평형 시공. 실내 황토방 시공 백반석+황토흙 혼합시공, 게르마늄 세라믹스 필름방 시공

기계 사업부 : 산업용 압축기(음식을 압축기, 캔압축기), 산업용 믹서기 (유압식 믹서기, V형 믹서기, 레미콘형 믹서기 등)

대농산업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울동 254번지
전화번호 : 0561)745-5888, 745-5856/ FAX : 745-5856

큰스님 수행한담

“아무 조건없는 보시

혜산스님 (내소사 회주)

지금부터 부처님 출가절에서 열반절로 이어지는 참회정진 기간입니다. 새해에 맞이하는 첫 불교명절이라 불자들이 새롭게 각오를 하게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큰 일이지만, 그 뜻이 어디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몸통이 출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출가는 마음의 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드림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여 지나 스님이 주석해 계시는 내소사 및 지장암에서 하는 특별정진법회에 동참했습니다. 3주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앓느라고 스님께 편지를 올리지 못했다고 여쭙자, 스님은 "누구나 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너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됐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출가는 법다이 인연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창시절, 학습이나 친구들 보다도 누가 존경할만한 선생님이신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하나하나 표본으로 삼으려고 그 선생님 가까이에서 났을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학교가 휴교를 했을 때도 방구석에서 '인생의 진실이란 무엇인가' 하는 등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밖에 참진(眞)자를 써 붙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가 몰두했던 것입니다. 대학졸업후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직장내에서 "암십의 빛"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나의 '인생의 진실'에 대한 답을 찾는 행로는 계속됐습니다.

그자리에서 나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절 밖으로 나가 지 않았습다. 사실 공부하는 수행자로 다른 스님이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하고 호기심도 생겨 돌아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훌륭한 스님이라면 그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 1933년 전록 정주생
· 58년 서울대 농대졸
· 63년 내소사에서 해안스님 은사로 득도
· 73년 법어사에서 구족계 수계
· 74년 해인사 해인총림 선원장
· 75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종정 수석서서
· 76년 조계사 주지
· 77년 한일불교교류협 이사, 전등선림 선원장
· 79년 동명불원 주지
· 83~93년 내소사주지



“보시는 다른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구제하며 자신의 탐욕을 제거합니다”

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철에 도 수행을 하지 않았습다. 밖의 소식은 다니러오는 수좌들을 통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해 어산에 능한 원명스님과 첫 만행 길에 올랐습다. 결망달고 탁발해 보리암과 오대산 보궁에서 기도하고 정암사로 가니, 은사스님께서 보내신 전보가 도착해 있었습다. "빨리 절로 오라"는 말씀에 즉시 돌아가니 스님께서는 "서울 장경호거사가 대중 포교도량으로 대원정사를 남산에다 세우고 지도해달라고 하니 내일 당장 같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서울 생활이 중단 행정일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수좌라는 생각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다. 조계사 주지를 하면서도 하루평균 4시간 밖에 잠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포교 교화 수행을 모두 해야 하니 어쩔수 없는 노릇이었고, 마음을 들고 사니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요즘 단기출가니 특별기도정진이니 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가자들을 위한 단기 특별정진

수행은 은사이신 해안스님께서 이미 30여년전 원력을 세우셔서 널리 퍼셨습다. 지난67년 부처님의 등불을 전해받아 모든이에게 전한다는 취지로 '불교전등회'를 결성하였고, 3주일을 단위로 특별정진법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나같은 못난이도 선지식 밑에서 1주일을 공부해서 알게됐다. 내 체험이니 자신을 가지고 시작해라" 하신바 직접 이끄셨던 것입니다.

보통 3주일의 과정은 이렇습다. 첫 1주일은 재가자들이 산란하게 살다가 갑자기 정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문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주일은 기도를 하게합니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모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일념으로 기도하는 순간은 다른 마음이 들지 않습다. 그리고 계속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사에 대한

Advertisement for Hwangto Soil Brick Machine, including product images, contact information for Bongseung Hwangto Village,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es.